



빨라진 개막...KIA 마운드도 '킵킵'

호주 캔버라 나라분다 볼파크에서 스프링캠프를 소화하고 있는 KIA 타이거즈의 투수 박준표(왼쪽)와 이의리가 5일 훈련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스프링 캠프**

호주 캔버라=김여울 기자 광주일보

이의리, 느리지만 내 페이스대로
박준표, 킵 동작 변화 제구 신경
황동하, 신 무기 '스유퍼' 시험

빨라진 개막, 마운드 움직임도 빨라진다.

KIA 타이거즈는 3월 23일 키움 히어로즈를 상대로 안방에서 2024 개막전을 치른다. 개막이 50일도 남지 않으면서 시즌을 준비하는 선수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호주 캔버라에서 스프링캠프를 소화하고 있는 KIA도 개막에 맞춰 마운드 예열을 하면서 시즌 밑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 5일 캔버라에 비가 계속 내렸지만 나라분다 볼파크에서는 예정대로 불펜피칭이 진행됐다.

이날 이준영, 김대유, 전상현, 박준표, 이의리, 정해영, 김기훈, 박도규, 황동하, 김민주가 불펜 피칭을 소화했다.

김태균을 필두로 한승택, 한준수, 주효상 등 포수 조도 투수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마운드 다지기에 공을 들였다.

오랜만에 다시 공을 던지면서 새 시즌이 다가왔다는 것을 실감한 투수들은 전반적으로 "괜찮다"는 반응을 보였다.

캠프 첫 불펜 피칭을 소화한 마운드의 핵심 좌완 이의리도 만족감을 보였다.

이의리는 이날 직구,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등을 구사하면서 20개의 공을 던졌다.

이의리는 "생각보다 좋았다. 괜찮았다. 공 높이 신경 썼고, 변화구들 한 번씩 던져봤다. 감은 괜찮다"며 "(한)준수 형이랑 이야기했을 때 직구가 팔 스트로크가 좀 느려진 것 같아서 직구가 무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 빼고는 괜찮았다"고 말했다.

또 "다들 편안한 분위기 속에 캠프를 하고 있다. 훈련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면서 할 때 집중하면서 하니까 잘 되는 것 같다"며 "다른 팀을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 팀도 피칭이 전체적으로 빠른 것 같다."

나는 조금 느리는데 스케줄 대로 잘 준비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사이드암 박준표와 우완 황동하는 변화를 위한 시작점에 섰다.

"오랜만에 던졌는데 생각보다 괜찮았다"며 첫 불펜피칭을 평가한 박준표는 "킵 동작을 신경 썼다. 이동걸 코치님과 마무리캠프 때도 킵을 할 때 다리를 높게 들지 말자고 했었다. 서재용 코치님과 말씀 하셨던 부분인데 이젠 시즌 때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캠프에서 변화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치님이 높게 드는 것과 낮게 드는 게 큰 차이가 없다고 잘 설명해 주셨는데, 내 킵 동작이 높다. 그래서 쓸데없이 높게 안 들려고 한다"며 "높게 들면 등이 처지니까 힘이 분산된다. 머리를 잡고 그 상황에서 들 수 있는 데까지 들고 과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 제구도 흔들리고 하니까 변화를 줬다. 피칭하면서 불편할 줄 알았는데 괜찮았다"고 밝혔다.

황동하는 불펜피칭을 통해 미국 드라이버라인에서 배운 새로운 구종 '스유퍼' 시험에 나섰다.

황동하에게는 프로 3년 차에 처음 해보는 1군 스프링캠프 불펜 피칭. 그만큼 긴장도 많이 하면서 첫 결과는 만족스럽지는 못했다.

황동하는 "27개의 공을 던져봤다. 배웠던 것, 스유퍼를 해보고 싶었는데 아직은 안 되는 것 같다. 처음에 너무 앞에 공을 쫓아서 그 뒤로 안 던졌다. 맞보기만 했다"며 "그래도 연습했던 것들이 불펜피칭하면서 나온 것 같다. 짧게 짧게 심플하게 던지려고 했는데 그 구분은 잘 된 것 같다. 다음 피칭 때는 스유퍼 연습할 것 잘 해보겠다"고 언급했다.

/글:사진=wool@kwangju.co.kr

호우도 아닌데 호주서 달려야죠

불펜 피칭·수비훈련 예정대로
야간 훈련은 취소·웨이트 대체

비가 와도 '호랑이 군단'의 질주는 계속된다.

KIA 타이거즈의 스프링캠프가 마련된 호주 캔버라에 5일 비가 내렸다. 오전 일찍 시작된 비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캔버라를 축축하게 적셨다.

뜨거운 햇살 아래 몸을 흘렸던 며칠을 생각하면 선수들에게 반가운 비지만 훈련을 이끌어야 하는 코칭스태프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운 비가 됐다.

1일 시작된 KIA의 스프링캠프는 '3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3일 연속 훈련을 하면서 캠프 첫 킵을 소화한 선수들은 4일 캔버라에서 첫 휴식을 취했다.

그리고 휴식일 다음날 비가 기다리면서 코칭스태프는 훈련 페이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했다.

일기 예보를 주시했던 코칭스태프는 5일 훈련 시작에 앞서 스케줄에 변화를 줬다.

순서대로 불펜 피칭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투수들은 일단 예정대로 전원 훈련장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베이스 러닝, 번트 시프트 훈련 등을 할 예정이었던 야수조는 두 조로 나눠 훈련에 나섰다.

고참들로 구성된 1조가 먼저 야구장으로 이동해 실내연습장에서 타격 훈련을 진행했고, 2조는 숙소 근처에 있는 웨이트장에서 먼저 몸을 만들었다. 이어 야수진들이 장소를 바꿔 캠프 두 번째 던 첫날 훈련을 소화했다.

다행히 이날 훈련에는 큰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았다. 투수들은 예정된 대로 불펜 피칭을 마무리했고, 비가 잠잠해진 틈을 타 그라운드에서 수비



호주 캔버라 나라분다 볼파크에서 스프링캠프를 소화하고 있는 KIA 타이거즈의 내야수 박민(왼쪽부터), 김규성, 윤도현이 5일 빗속에서 수비 훈련을 하고 있다.

훈련도 진행됐다.

가랑비는 기다렸다는 듯이 훈련이 마무리된 뒤에 한 번에 쏟아졌다. 훈련 시간을 피해준 폭우 덕분에 큰 차질 없이 훈련은 진행됐지만 날씨의 영향은 계속될 전망이다.

6일 오전까지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나오면서 5일 그라운드에서 예정됐던 야간 훈련이 취

소됐고, 6일 스케줄에도 변화가 생겼다.

KIA는 그라운드 훈련 뒤 웨이트 일정을 소화하면서 캠프를 진행했다. 하지만 6일 오전까지 비가 예정된 만큼 웨이트장에서 먼저 훈련을 한 뒤 오후에 나라분다 볼파크로 이동해 그라운드 훈련을 이어갈 계획이다.

/wool@kwangju.co.kr

비가 48억원 벌어들였다...클라크, PGA 페블비치 우승

AT&T 프로암 4R 악천후로 취소...54홀로 최종순위 결정

원팀 클라크(미국)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AT&T 페블비치 프로암(총상금 2000만달러) 마지막 날 땀 흘리지 않고 우승을 차지했다.

클라크는 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페블비치 골프 링크스(파72·6972야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대회 4라운드 악천후로 취소됨에 따라 최종 우승자로 확정됐다.

대회가 54홀 경기로 축소되면서 전날 3라운드를 기준으로 단독 선두인 클라크(17언더파 199타)가

트로피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PGA 투어 경기위원회는 "대회가 열리는 몬터레이 카운티 안전국과 논의 끝에 월요일(현지시간)로 연기됐던 경기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투어 규정에서 54홀 결과로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고 공지했다.

PGA 투어 대회가 54홀로 축소 진행된 것은 2016년 취리히 클래식 이후 약 8년 만이다.

이로써 클라크는 2024시즌 첫 승을 신고하고 작년 6월 이후 8개월 만에 통산 3승째를 따냈다.

이 대회는 올해부터 특급 대회로 지정됐기 때문에 우승 상금만 무려 360만 달러(약 48억원)다.

2017년 프로가 된 클라크는 지난해 5월 PGA 투어 134번째 출전이었던 웰스파고 챔피언십에서 첫 우승을 달성했다. 그리고 6주 뒤 US오픈에서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를 한 타 차로 따돌리고 첫

메이저대회 우승까지 거머쥐었다.

클라크는 전날 3라운드에서 12언더파 60타를 때려 코스 레코드를 세우고 단독 1위로 도약했다.

종전 기록은 2017년 대학 대회인 카멜 컵에서 헐리 롱이 작성한 61타였다. 프로 대회 기준으로는 1983년 톰 카이트와 1997년 데이비드 듀발 등 4명의 선수가 기록했던 62타다.

반면 4라운드 역전 우승을 노렸던 상위권 선수들은 곳곳 날씨에 아쉬움을 삼켰다.

루드비그 오베리(스웨덴)가 한 타 많은 16언더파 200타를 쳐 준우승했다.

3위는 지난달 프랑스 선수 최초로 PGA 투어 우승을 차지했던 신인 마티외 파방(15언더파 201타)이다.

4라운드에서 톱 10 진입을 노렸던 김시우는 공동 14위(10언더파 206타)로 대회를 아쉽게 마쳤다. 안병훈, 김성현, 김주형은 나란히 공동 31위(7언더파 209타)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남구청 양궁 이승윤, 파리올림픽 성큼

실업양궁 개인전 금

양궁 국가대표 이승윤(남구청·사진 왼쪽 두번째)이 실업양궁연맹 대회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승윤은 지난 2일 충북 옥천체육센터에서 열린 제26회 한국실업양궁연맹회장기 실업양궁대회에서 개인전 1위에 올랐다.

이승윤은 64강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하고, 32강전에서 장재환(상상구청), 16강전에서 한재엽(현대제철), 8강전에서 이호빈(전북체육회)을 제쳤다. 4강전에서 박민범(인천계양구청)을 7-1로 이기며 결승에 오른 이승윤은 남유빈(현대제철)을 세트스코어 6-4로 꺾으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2024 파리올림픽 양궁 국가대표 선발을 위한 리커브 2차 선발전에서 배점합계 55점을 기록하며 광주·전남 남자 선수로는 유일하게 선발전을 통과한 이승윤은 다음달 국가대표 최종선발전을 앞두고 있다.



여자 양궁에서는 광주시청이 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했다.

최민선, 이가영과 새로 영입된 김수린, 김재윤이 팀을 이뤘다. 광주시청은 16강을 부전승으로 통과하고 8강에서 여주시청을 세트스코어 5-1로 꺾었다. 4강에서 인천시청을 만난 광주시청은 1-5로 패하며 동메달을 기록했다. 인천시청은 이번 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